

반인 반공 반유대 민족주의 철폐야

세계를 또다시 놀라운 공화국의 신형대륙간란도미사일시험사성공의 장쾌한 폭음이 얼음이 나간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분주함을 피우며 군사적대결에 매달리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공화국이 신형대륙간란도미사일시험사를 단행하자 그에 대한 《맞대응》을 운운하며 황급히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미사일정밀함대대공격훈련과 《F-35A》 전투기를 동원한 무장장비착륙훈련 《엘리트워크》(일명 《코끼리걸음》)를 벌여놓았다.

그런가 하면 제142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북미사이일협》에 대비한 지상대공중도미사일의 대량생산을 의결하는 등 전례없는 군사적대결광기를 부렸다.

그야말로 상대도 되지 않는 하루강아지들의 허세성불장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라가 인정했듯이 《최강》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공화국이다.

이전에 단행한 첨단국방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신형대륙간란도미사일 시험사성의 통과한 성공으로 공화국은 자기의 절대적 힘, 군사적강세를 만방에 떨쳤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치포한 제재책동, 군사적압박도 항주강국의 앞길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도 범취세울 수도 없다는 것을 공화국은 분명히 아니라 실물, 실적으로 증명하였다.

미국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념불에 불과한 제재와 《대화》를 외위대는 형편인데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한 남조선호전세력이 그 무슨

《맞대응》을 운운하고있으니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외세에 남조선인민들의 피담을 짜낸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퍼주고 수입산기 몇개를 끌어들인다고 《선진화》되었다고 자랑질에 여념이 없더니 그 취약한 무력으로 누구를 상대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썩은 닭알로 천년바위를 깨보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가소로운 망동이다.

예로부터 겁먹은 개가 더 오래 버틴다고 했다.

상전의 안전이자 저들의 안전이라고 자제위안하던 자들, 미국이 없으면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부세기를 치던 자들이 《맞대응》한다 어찌나 만용을 부리고있으니 범에 놀란 늑이 총피를 갖기는 것처럼 가공한 처지만 부각시켜줄뿐이다.

그만큼 남조선호전세력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기도 한다.

상대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이 그들의 비극이고 무분별한 대결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판별할 줄 모르는 것도 그들의 가공한 운명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대결이 아니라 화해를!

남조선호전세력은 자기 땅에서 왜 이런 목소리가 울리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혼백이 나가 무분별한 대결을 추구하다가 그 누구를 지키는 고사하고 비루한 잔명도 부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 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살생부》

의욕된 인식에 근거해 녀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한탄스럽다. 《녀성가족부의 폐지는 고질적인 성차별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녀성가족부폐지를 반대해나섰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두 기구를 통합하여 과학기술교육부를 내오는 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전문가는 한명도 망라되지 않았고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보고서까지 공개되었다고 한다.

《교육이 뒤전으로 밀려나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이 과학기술에 종속되거나 뒤전에 밀려서는 안된다.》, 《교육을 홀시하는 과거 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남조선교육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이다.

이밖에도 윤석열이 《대북강경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여 통일부도 대수술이 불가피하고 고위공직자범죄를 《은폐》시킨다는 미명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능도 축소될 것이라고 하니 이 부서들이 반발하고있는 것도 당연하다.

윤석열이 벌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작놀음은 한갓 광고에 불과하고 실지로서는 《통합》과 《폐지》, 《축소》의 공간을 리용하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부서, 인물들을 제거하고 심부들로 《정부》를 구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정치적적수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명 《살생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현 《정권》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무자

비한 정치보복을 벌리려는 중심의 발로이다.

한마디로 독재권력기반을 다져 반인민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책을 마음먹은대로 실현해보자는 것이 이기 바로 윤석열이 추구하는 《정부조직법개정》놀음의 진목적인 것이다.

윤석열이 몰아올 《인생대풍》 전야는 섬뜩한 《살생부》 작성과 정치보복의 칼을 버리는 소리로 어수선하기만 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스스로 화를 불러온 남조선의 정치인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든 속담이 있다. 권력의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추구하며 그것을 실현해보겠다고 설쳐대는 윤석열패들의 교락시기가 꼭 그 적이다.

지금 윤석열패들은 《한미동맹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미국에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보내고 서울주재 일본대사를 만나 《판계개신》과 《한미일장외장공조》를 구걸하는 등 반공화국대결과 제책임박을 위한 결탁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이 집권하면 인자 《북인권대사》를 임명하겠다고, 《북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반공화국 《인권》소통에 매달릴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공화국과 대결해보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스스로 화를 청하는 열간망둥이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 하겠다.

공화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자위의 강국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모든 정책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에서 작성, 집행되고 사회의 모든 물질문화적재부가 인민의 행복과 문명을 위해

북무하는 공화국에서 《대북정책》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킬뿐이다. 이전 보수 《정권》 때보다 정세를 더 엄중하게 만드는 처사이다. 5년 내내 국민들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속에 몰아넣는 민회할수 없는 실수이다.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화된 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서부른 행태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연해연방 울려나오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위는 없다. 더우기 미국상전의 바지개령이에 매달려 간신히 명을 부지하는 가련한 식민지노복들이 상전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무적의 강국과 엮어 보겠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든 스스로 화를 청하는 자멸적인 망동이다.

과거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다가 어떤 비참한 운명에 처했는가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그로서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에 매여달리다가는 선민자들의 쓰름인 걱정을 밝는 것은 물론 임기내내 불안감을 안고 고달픈 나날을 보게 될 것이다.

김현일

더욱 고조되는 반윤석열투쟁 열기

남조선의 각계층에서 반 윤석열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이제는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이 취임전부터 기를 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대표적인 노동운동 단체인 민주로총이 내건 구호이다.

민주로총이 이러한 구호를 들게 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금 윤석열과 그가 만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의법적인 민주로총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생존권을 위한 민주로총의 의로운 투쟁을 《불법 집회》로 낙인하고 《법정처리》를 할 것이라며 으르렁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변경, 폐지하려고 하는가 하면 노동운동단체들을 외면하고 친재벌적인 본



쇠고랑을 찾아야 할 《범죄자》

남조선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자가 비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말이나 망랑 하여 인민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 전 윤석열은 말쑥잡은 《대통령》 사무실이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주요 군사기밀이라는 국방부의 지하방공호취치를 공개하였다고 한다.

《지금 여기에는 지하에 벙커(방공호)가 있고...》, 《이게 다 지하로 쫓겨있어 있어서》라고 하면서 극히 제한된 소수의 인민만이 알고 있다는 장소를 소개하였는데 그것이 TV로 빠졌어 생중계되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윤석열은 유사시 리용하게 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가지

휘통신》차량리용계획까지도 로출시켜 측근들내부에서까지 짹짹 놀랐다고 한다.

군사기밀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초보적인 상식도 모르는 말도 무식이나 낡은 회피국이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을 폐 해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윤석열의 무식이 론난거리로 된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주 120시간노동》, 《민주주의는 수입한 것》 등 윤석열의 《무식자랑》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의 어리석은 행태를 놓고 《초보적인 상식조차 모른다》 정말 우러된다. 《(여기가

집안단속도 못하는 주제에 《국민통합》을 ?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그 무슨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내었다고 한다.

발상은 그럴듯한데 빛좋은 개살구와 다름없다는 것이 남조선인심이다.

리유는 충분하다.

녀성가족부 폐지, 친재벌 정책, 《대통령》 사무실이전 등 남조선인민들이 반대하는 것만 팔라서 하는, 그래서 지역간, 세대간, 계급간, 남녀간 갈등을 더욱 조장시키는 갈등정치, 대립정치의 장본인이 다름아닌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더우기는 당내부마저도 당 대표과와 윤석열파사이, 당 지도부와 증진들사이, 증진과 신진들사이, 친박근혜파와 비박근혜파사이, 《국민의힘》과 합당하게 될 《국민의 당》 세력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더욱 고조되고있으니 말이다.

실례로 6월지방자치제선거와 관련한 후보추천과 심사

의 후보자리를 제대로 얻어 가질 수나 있었는지 하고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렇게 상하좌우로, 끼리끼리 모여 눈총을 쓰고 무력에 힘을 주고 뽐뿌이 높아대는 《국민의힘》이 《국민통합》을 운운하니 참 가소롭지 않은가.

권력을 위해서는 리갈만한 양보도 모르는 자들,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는 상대를 물어메치는데 이골난자들이 만드는 《국민통합》이란 또 하나의 기만적인 광고판이고 정치막간극에 불과한 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비극의 적자는 죄를이죄리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제주도 인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은 1948년 《유엔임시조선위원회》의 《입국》을 반대배격하고 5.10미국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있게 일떠섰다.

1948년 3월말부터 제주도 인민들은 한나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악지대에 들어가 근거지를 꾸리었으며 4월 3일 《미제를 타도하라!》, 《단선단정 결사반대》, 《유엔임시조선위원회는 한나산에서 결사반대》 등 구호를 웨치며 대동적투쟁으로 넘어갔다.

봉기군중들은 적극적인 투쟁으로써 제주도에서의 망국

이러한 정세하에서 제주도 인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은 1948년 《유엔임시조선위원회》의 《입국》을 반대배격하고 5.10미국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있게 일떠섰다.

1948년 3월말부터 제주도 인민들은 한나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악지대에 들어가 근거지를 꾸리었으며 4월 3일 《미제를 타도하라!》, 《단선단정 결사반대》, 《유엔임시조선위원회는 한나산에서 결사반대》 등 구호를 웨치며 대동적투쟁으로 넘어갔다.

봉기군중들은 적극적인 투쟁으로써 제주도에서의 망국

의 후예인 보수패당은 저들의 극악한 범죄에 대해 오늘까지도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고있으며 온갖 정황과 횡포를 부리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무참히 탄압말살하여왔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양중에도 없는 보수패당을 비롯한 친미사대매국력들의 절박이상이나 되는 에서와 같은 류형참극이 또 다시 되풀이되리라는 것은 더론할 여지가 없다.

력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그 근원을 송두리채 제거해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한일혁

본사기자 김정혁